

천하제일사료

▶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9월 1일 중앙연구소에서 윤하운 총괄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날 윤하운 총괄사장은 “천하제일은 20년 전부터 으뜸결과 행동강령 등을 통해 기업윤리를 강조해 왔다”며, “과거 선배들의 숭선수범을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이어가는 기업문화가 큰 자산”이라 말했다.

이어 “2012년에 50주년을 맞는 천하제일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윤리는 필수”라며, “이번 선포식이 새로운 50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고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제일은 지난 7월 1일 윤리경영간담회를 통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윤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실천 로드맵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참석한 전 임직원이 윤리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하운 총괄사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예로 들면서 경미한 부주의와 부도덕으로 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자는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농가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오던 천하제일이 이날의 선포식을 계기로 업계 내에서 더욱 우뚝 선 기업으로 발돋움해 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 국무총리상 수상 영예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총괄사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가든호텔(무궁화홀)에서 열린 ‘2011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와 직업 능력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유공자 등에게 증서 및 포상이 수여되었다.

천하제일사료는 임직원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일등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으로 인재를 육성해 나가며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연령, 신체조건,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어 이번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재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오늘의 주인공들은 학력의 벽을 넘어 공생발전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수십 년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오신 분들로 우리 젊은 기능인력들에게는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하운 총괄사장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멘토와 코칭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개인이 받은 상이 자기보다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이뤄낸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천하제일은 최근 윤리경영선포식을 열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50년을 다짐하는 5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포상은 더욱 의미가 깊다.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

▶▶ 사회공헌팀 안다미로 추석선물 전달

두산생물자원(대표이사 박근호) 사회공헌팀 ‘안다미로’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 9일 복지센터 기관 아이들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두산생물자원은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와 아이들의



책가방, 학년별 도서, 과자종합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아이들도 지난 8월 진행된 문화활동(에버랜드)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각자 멘토들에게 전달하는 등 끈끈한 인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두산생물자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 영업부문 극기훈련 실시



두산생물자원 영업부문은 지난 9월 16일 영업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속리산에서 산행극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영업에 대한 자신감과 집중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날 영업부 전원 모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산행코스를 모두 완주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를 얻었으며 이러한 마음자세를 현장에 접목시켜 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굳게 다짐했다.

▶ 제조부문 단합대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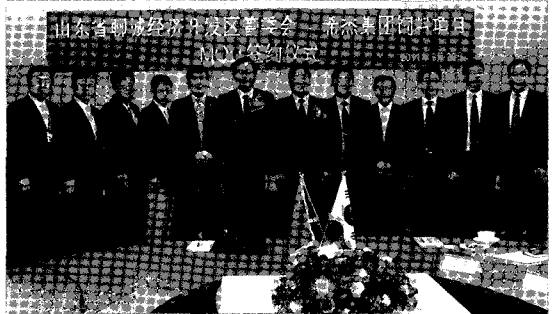
두산생물자원 제조부문은 지난 8월 21일 부천 공장에서 성공적인 공장혁신을 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와 의지를 실천하고자 전 임직원들이 하나의 단합된 힘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적인 목표성공을 달성하지는 의지를 굳건히 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CJ제일제당

▶ 중국 요성시와 사료공장 투자를 위한 MOU 체결

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철하)이 포화상태에 달



한 국내 사료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사료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사료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사료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가축사육두수가 제일 많은 국가로 세계 최대의 잠재소비력을 갖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사료생산의 주요 곡물인 옥수수 주산지인 중국 산둥성 요성시에 9번째 사료공장 건설을 하기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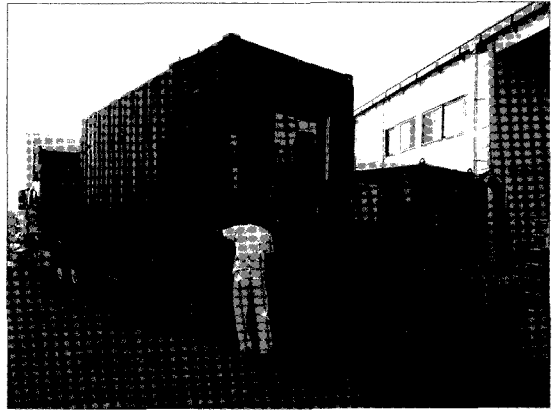
앞서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은 2003년 성도를 시작으로 심양, 청도, 정주, 남경, 천진, 허얼빈, 장사 등 8개 지역에서 사료사업을 전개 중에 있으며, 특히 산둥성은 중국 전체 사료시장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향후 CJ제일제당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15만톤 이상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22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유종하 사료사업부문장, 중국 쟁첸위 요성시 부시장 및 요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요성 사료공장 투자를 시작으로, CJ제일제당은 지속적으로 생산기지를 추가해 중국 사료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은 현재 국내 3개 지역(인천, 군산, 원주)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7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약 2조원의 매출(사료사업부문 기준)을 달성하며 국내 대표사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통해 글로벌 사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한다는 목표다.



종닭)가 지역별로 브랜드화 되어있어 일반 육계보다 비싸게 판매되어 지고 있다. 자국의 토종닭을 우수하고 맛있다고 인식하는 일본인들의 식탁에 한국의 우수한 토종닭이 올라 맛과 영양을 채워준다면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로 토종닭의 소비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출로 내년부터 시작될 종자전쟁에 앞서 우리 토종 종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식세계화에 일조하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협축산

▶▶ 한협 토종 삼계탕, 일본 수출

우리 민족 고유의 자산이자, 후대에 물려줄 문화적 유산 가치를 지닌 토종닭 '한닭'이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 수출의 쾌거를 이룬 제품은 (주)한협축산(대표 박범진)에서 개발한 '한협토종 삼계탕'으로 지난 9월 22일 부산항에서 6,000수를 선적했다.

이번에 수출한 '한협토종 삼계탕'은 일본의 유명 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전부터 토종삼계탕의 우수성과 영양 등을 예고 방송해 토종삼계탕의 처녀 수출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수출한 '한협토종 삼계탕'은 근대화를 거치며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하마터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뻔한 토종닭을 토종 종자를 지키겠다는 일념과 사명감으로 3대에 걸쳐 복원한 한협 토종닭만을 사용한 제품으로 800g 이상의 양질의 닭을 사용해 내용과 품질, 맛 모두 우수하다는 평이다.

특히 일본의 양계산업은 지도리(じどり), 일본 토

<인사소식>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9월 8일자

<3급 승진>

- 축산경영과장 노수현
- 소비안전정책과장 김응분